

더오르는 STARTUP RHX

# 고비용·전문성 엔지니어링 검증...진입 장벽 낮춘다

최근 AI(인공 지능), 전기화 같은 첨단 기술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이에 맞춰 규제가 진화하며 지속 가능하고 개인화된 지능형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치가 높아짐에 따라 실제 엔지니어링 과정의 복잡성이 증가하고 있다.

때문에 실제 데이터는 넘치는데 제대로 쓰는 기업은 많지 않아 기업 데이터의 상당수가 방치되고 있는 현실이다.

최근 기업에서 AI 엔지니어링 시뮬레이션 플랫폼은 '있으면 좋은 도구'가 아니라 AI를 실제 사업에 쓰기 위해 필수적인 인프라에 가깝다.

AI 엔지니어링 시뮬레이션 플랫폼은 현실에서 실행하기 어려운 상황을 가상 환경에서 재현하고, AI 모델을 안전하게 학습·검증·최적화하는 데 쓰이는 도구다.

시뮬레이터의 계산 부담을 줄이거나 자동화하고, 설계 공간 탐색·데이터 인텔리전스를 강화해 R&D 주기를 단축하는 데 초점을 두며 설계·검증 과정을 가속화하기 위해 AI 기반 분석, 시뮬레이션, 자동화, 협업 기능을 통합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업이 성공하려면 엔지니어링 영역, 방법 및 도구를 효과적으로 통합하는 동시에 숙련된 엔지니어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데이터의 출처·품질·맥락을 기반으로 AI가 활용할 수 있도록 구조화하고 관리해 실행 가능한 통찰을 제공하기 위한 제품 개발에 나서고 있는 스타트업이 있다.

알에이치엑스(RHX, 대표 김리현)는 기술 격차로 인해 소외된 전체 엔지니어 시장의 80%가 겪는 비효율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 2025년 업계에 첫 발을 내디뎠다.

RHX는 비전문가도 사용할 수 있는 AI 엔지니어링 시뮬레이션 플랫폼인 '릭시'(RHXY)를 개발·운영하는 닷테크 스타트업이다.

자연어 질문 한 줄로 3D 모델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SaaS(Software as a Service,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업체의 주력 제품인 리키는 자연어 질문을 시뮬레이션 조건으로 자동 변환해 별도의 전문 인력이나 소프트웨어 설치 없이 검증 결과를 제공한다.

## AI 엔지니어링 시뮬레이션 기술 플랫폼...기술 격차 완화 기초 질문 자동 변환...전문인력·프로그램 설치 없이 검증



김리현 대표

특히 격차 생성, 경계조건 설정, 해석 방법 선택 같은 전통 CAE(Computer Aided Engineering)의 어려운 부분을 AI가 전부 대신 처리한다.

릭시의 핵심은 엔지니어링 검증에 접근하고 싶지만 비용과 전문성 장벽에 막혀 있던 사용자 전반을 대상으로 해서 사용자가 엔지니어링 전문가가 아니어도 된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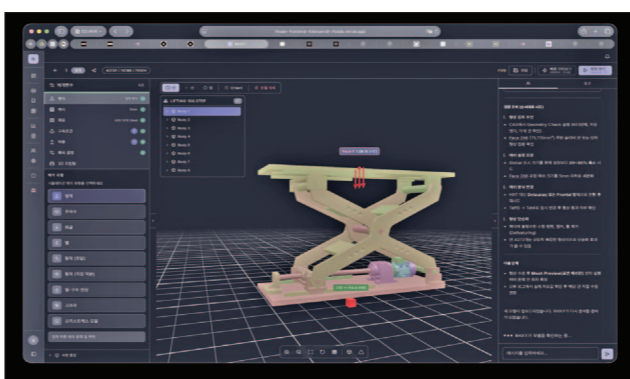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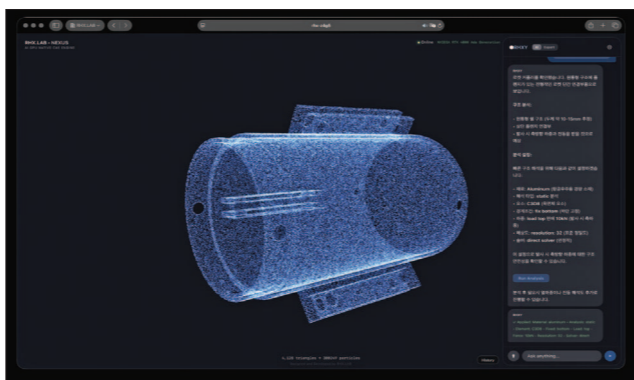
중소 제조기업, 하드웨어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현재 CAE를 쓰고 싶어도 비용과 전문성 장벽에 막혀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모든 비전문가가 리키의 사용자가 된다는 것이다.

또 RHX는 전문 엔지니어와 수 주간의 작업이 필요했던 기존 CAE 과정을 단일 세션으로 압축해 단 3~5분으로 줄였다.

이밖에도 국내 다수의 AI 스타트업이 해외 모델·엔진 위에 응용 서비스만 얹는 구조인 반면, RHX는 AI 자동화 레이어부터 시뮬레이션·위상최적화·렌더링 엔진까지 풀스택으로 직접 개발하고 있다.

RHX는 'AI 기술'과 '제조 현장'이 공존해 기술 고도화와 현장 실증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구조적 우위에 있는 광주라는 도시 환경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전남대 AI 응용서비스 주력 산업, AICAGPU 인프라, 광주테크노파



RHX의 주력 제품인 리키는 자연어 질문을 시뮬레이션 조건으로 자동 변환해 별도의 전문 인력이나 소프트웨어 설치 없이 검증 결과를 제공한다. 특히 격차 생성, 경계조건 설정, 해석 방법 선택 같은 전통 CAE(Computer Aided Engineering)의 어려운 부분을 AI가 전부 대신 처리한다.

크 제조 중소기업 네트워크와의 연계가 회사의 단기 사업과 전략에 직접 포함돼 있다.

RHX 목표는 단순히 시뮬레이션 도구를 더 저렴하게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아이디어 구체화→기회안 작성→설계→제작→검증의 다섯 단계를 AI가 한 플랫폼 안에서 자동으로 안내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김리현 RHX 대표는 "RHX는 단일한 도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산업의 진입 비용을 동시에 낮추는 인프라가 되는 것이다. 검증 부담이 사라지면 더 많은 아이디어가 실제 제품으로 이어진다. 그것이 RHX가 만들고자 하는 진짜 변화다"며 "지금은 작은 스타트업에 불과하다 볼 수 있지만 '엔지니어링이라는 영역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도구로 바꾼다'는 목표로 지역과 함께 성장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윤성성 기자 y1404@gwangnam.co.kr



RHX는 지난해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G.MAP)에서 열린 2025 디지털아트 컬처캠 쇼케이스 '광주 빛의 궤도'에 참여했다.



RHX는 지난해 광운대 NCI창업패키지사업단이 추진한 '예비창업패키지' 사업에 참여해 멘토링, 투자 유치 등 성장 지원 프로그램을 수료했다.

# 삼성전자, 세계 최초 'HBM 4E 12단' 제품 샘플 출하

<고대역폭메모리>

## HBM 기술 경쟁력 입증...차세대 시장 주도권 선점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고대역폭메모리(HBM) 4E 12단' 제품의 샘플을 출하했다. 이는 차세대 인공지능(AI) 가속기의 핵심으로, HBM 시장의 주도권을 잡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 2월 업계 최초 6세대 'HBM4' 양산 출하한 데 이어 불과 3개월 만에 'HBM4E 12단' 샘플을 글로벌 고객사에 전격 공급했다.

특히 이번 HBM4E 공급은 단순한 제품 라인업 확대를 넘어 향후 폭발적으로 성장할 글로벌 AI 인프라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독보적인 공급 역량과 기술적 우위를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의 HBM4E는 설계 및 공정 최적화를 통해 독보적인 스펙을 구현했다. 핀당 동작 속도는 14Gbps에서 최대 16Gbps까지 지원하며, 이는 전작 HBM4 대비 20% 이상 대폭 향상된 수치이다.

또 단일 스택 기준 초당 3.6TB(테라바이트)의 대역폭을 제공하는 대규모 언어 모

델(LLM) 및 차세대 AI 시스템의 연산 속도를 극대화했다.

용량 측면에서도 개선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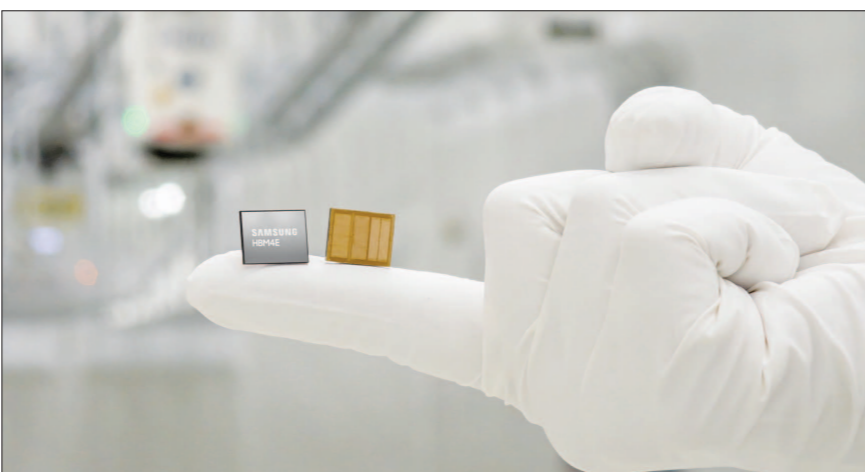
HBM4E 12단 제품은 48GB(기가바이트)의 고용량을 구현해 전자 대비 용량을 30% 이상 늘렸으며, 향후 고객사의 다양한 서비스 환경에 맞춰 32GB(8단), 64GB(16단)까지 라인업을 빈틈없이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제품의 가장 큰 차별점은 삼성전자가 보유한 메커니즘의 완벽한 조화에 있다.

또 저전력 설계 및 패키징 구조 최적화 기술을 집약해 전자 대비 에너지 효율은 16%, 열 저항 특성은 14% 이상 크게 개선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샘플 공급을 시작으로 고객 일정에 맞춰 양산 공급할 예정이다.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개발담당 황상준 부사장은 "HBM4 양산 성공에 이어 차세대 HBM4E 샘플 공급까지 차질 없이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출하한 HBM4E 12단 제품.

인수하며 삼성전자의 독보적인 기술 리더십을 시장에 확실히 각인시켰다"며 "앞으로도 압도적인 기술 초격차와 선제적인 생산 인프라 투자를 바탕으로 글로벌 AI 메모리 시장의 성장을 강력하게 주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지난 2월 세계 최초로 양산 출하한 HBM4도 양산 공급 확대 중이다. 글로벌 고객사들은 삼성 HBM4에 대해 속도와 전력 효율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지난해 12월 삼성전자 HBM4는 최종 인증 단계인 SIP(System in Package) 테스트에서 11.7Gbps의 업계 최고 수준 속도를 입증하며 최고 등급 평가를 받았다.

HBM4E와 동일한 1c D램과 4나노 배이스 다이 조합이 적용된 HBM4가 양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출하한 HBM4E 역시 양산 전환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 한전KPS, 청렴문화 확산 '소통의 자리' 눈길

## '청렴 ON STAGE' 개최...참여형 프로그램 진행

전력 설비 정비 전문회사인 한전KPS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소통의 자리를 마련했다.

한전KPS는 최근 '2026년 한전KPS 청렴의 날'을 맞아 본사 대강당에서 반부패 청렴 가치 확산을 위한 참여형 복합 문화 행사 '청렴 ON STAGE'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전KPS가 대내·외 청렴 소통 공감대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매년 5월 넷째 주 목요일을 '청렴의 날'로 지정하고, ESG경영을 실천하고 반부패 청렴문화를 확산하고자 마련했다.

'청렴 ON STAGE' 행사는 청렴의 가치를 단순한 규정 준수를 넘어 구성원 모두가 함께 공감하고 참여하는 문화로 확산 시키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행사는 임직원과 함께 외부 거래회사 관계자, 유관기관, 지역주민 등 2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거래회사 대표 간담회, 제1회 청렴인상 시상식, 청렴뮤지컬 전문 공연, 청렴의 날 지정 선포식 등 다채로운 참여형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소통과 공감

의 장이 됐다. 특히 참석자들은 '청렴 ON' 메시지를 전달하는 종이비행기 날리기 퍼포먼스를 함께하며 공정과 신뢰의 가치를 함께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다불어 거래회사 대표 간담회를 통해 상임감사가 직접 거래회사 관계자들과 함께 공정·윤리경영 실천방안과 상생협력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청렴 동행의 지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올해 처음 신설한 '청렴인상' 시상식에서는 조직 내 청렴문화 확산과 윤리경영 실천에 기여한 직원들을 시상해 청렴 실천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조직 전

를 단순한 규정 준수를 넘어 구성원 모두가 함께 공감하고 참여하는 문화로 확산 시키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행사는 임직원과 함께 외부 거래회사 관계자, 유관기관, 지역주민 등 2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거래회사 대표 간담회, 제1회 청렴인상 시상식, 청렴뮤지컬 전문 공연, 청렴의 날 지정 선포식 등 다채로운 참여형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소통과 공감의 장이 됐다. 특히 참석자들은 '청렴 ON' 메시지를 전달하는 종이비행기 날리기 퍼포먼스를 함께하며 공정과 신뢰의 가치를 함께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다불어 거래회사 대표 간담회를 통해 상임감사가 직접 거래회사 관계자들과 함께 공정·윤리경영 실천방안과 상생협력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청렴 동행의 지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올해 처음 신설한 '청렴인상' 시상식에서는 조직 내 청렴문화 확산과 윤리경영 실천에 기여한 직원들을 시상해 청렴 실천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조직 전

이성구 한전KPS 상임감사는 "청렴은 제도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 모두의 공감과 실천 속에서 조직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다"며 "앞으로도 윤리경영과 ESG 가치 기반의 청렴 시책과 상생협력 활동을 지속 확대해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공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조현민 기자 pose007@